

사라졌다... 선암사에 있던 문화재 7점

조계종·태고종, 재산인계인수 중간점검 결과 발표

문화재당국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회계 부실과 토지 망실 등 재산 망실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있다"며 "이로 인해 성보문화재의 수장 위치파악이 곤란하고, 기 조사 유물목록의 누락에 따른 실제조사에서의 수량차이 파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보관상태 엉망

보존환경과 관리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조장치가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유물을 겹쳐 보관하는 등 개별 문화재 성질을 고려치 않는 수장 방식으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체계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관계자는 "현재 순천시와 선암사가 각각 열쇠를 갖고 있어 화재 등 사태 발생 시 유물 훼손 가능성이 높다"며 "CCTV는 작동되지 않아 최근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문화재의 수장 위치도가 없어 문화재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할 정도였으며 비효율적인 관리행태를 꼬집었다.

성보문화재 유출 심각

조계종·태고종 공동인수위원회는 최근 선암사 재산 인계인수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42년 간 순천시에서 문화재와 재산관리를 맡아오다 조계종·태고종 공동인수위원회에서 관리를 인계받아 지난 3월 초부터 4개월에 걸쳐 성보문화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현재 70~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조각 65점, 회화 127점, 공예 375점, 현판류 118점, 서지류 1351점, 석조 59점, 기와 62점, 복식 20점, 건축 17점, 경관 36점 등 총 2230점을 조사했다.

재산관리 하던 순천시

관리부실 여실히 드러나

회계 부실, 토지 망실 등

선암사 두고 의혹만 커져

조사결과 문화재 7점의 분실이 추정되는 등 순천시의 재산관리인 당시 문화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작성한 유물카드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는 불화 1점(행로암 신중도), 편액 2점(강선루 편액), 서지 3점(대해각보각서, 선암사 창건연대일람, 염송집), 경관 1매(침광집 발문) 등 총 7점이다.

순천시 주암면에 소재한 4942평과 답 210평 등 5152평이 2007년과 2009년도에 L골포장에 매매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 선암사 측은 71건 3만4244평에 대한 재산이 개인에게 매매되거나 소유권 이전, 사찰과 개인의 공유관계로 되거나, 근저당권 설정도 있다는 부실한 재산관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골포장 토지는 체육시설로 지정돼 전납토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매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조사는 순천시가 제공한 244필지 336만9318평의 부동산 내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며 권리 및 현재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여부, 등기부와 토지대장과의 일치여부, 미등기 여부, 원거리 토지의 실제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한 임차관계 등을 조사 검토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제시대 자료인 임야조사서와 토지조사서, 심지어



순천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이 부실공사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는 사찰령까지 취합한 후 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 구대장, 카드식대장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위는 토지 망실과 관련 재조사 이후 환수 등 법적인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재산의 변동, 손익의 변화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선암사 재산관리인인 순천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만 보관하고, 매 사업연도의 수지(손익현황)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집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국회서 사태 은폐 질타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9월 13일 "천년고찰인 선암사와 보물급 문화재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순천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소관 상임위원 문방위에 보고조차 없었던 것은 이런 사태를 은폐하기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2년간 선암사의 재산관리를 행사해 온 순천시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실태와 재산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며 "문화재관



선암사 수장고 모습

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화재 보수공사에 예산여부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기관 차원의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 400호), 대웅전(보물 제 1311호), 일주문, 팔상전 등 문화재 보수공사에 10년간 100여 억원의 보수비용이 투입됐지만, 승선교는 부실 복원으로 돌 사이의 틈이 벌어졌고, 누수로 인해 대웅전 처마가 썩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암사 성보박물관 전수조사 결과 분실 및 훼손문화재 진상조사 후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던 점 >부실 문화재 보수공사로 인해 선암사의 보물급 문화재와 사찰 건물 훼손정도가 심각한 점 >선암사 임장료 수입 등 관련재산을 회계·결산 자료도 없이 지자체가 사용

된 점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감사를 질타했다.

순천시 상대 소송 들어가

공동인수위는 최근 순천시가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고 불법건축물을 축조한데 대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임야를 인도하라는 소장을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순천시가 운영 중인 차체협관으로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 있을 당시 선암사 경내 부도전 뒤 5000㎡의 부지에 연건평 803㎡의 규모로 총 8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지난 2007년 개관해 순천시 명의로 등기하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공동인수위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임야 인도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사는 기자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는

왜 스님들은 아이패드 쓰면 욱덕을까

9월 4일 경북 청도의 비구니 경학도량인 청암사승가대학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개교식을 가졌다. 이곳 학인스님들은 태블릿PC인 '아이패드2'에 청암사가 제작한 앱(App)을 설치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한 네티즌은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의 전자수업을 응원했다.

이를 조선일보가 '비구니 승가대학 스님들이 태블릿PC 마주앉아 쪽 나란히...'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knocker8은 "속세 떠난 중들이 속세 익히는 모습이라...재물은 속세에 있나니..."라고 댓글을 달았고, sbo33bn은 "종교가 없어질 날이 올 것 같다"라고 글을 남겼다. shs0151은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데가? 무엇 때문에 벽면기도를 하는가?"라고 남겼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청암사법 제작에 참여했던 현공 스님은 게시글을 통해 "무슨 일에든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속속처려 보인다든 표현은 조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암사법을 제작하는 동안 이것도 하나의 불사라 생각하며 하루를 빠듯하게 살았고 출사 후 더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S씨는 "불교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와 조직력이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느낌을 반성해야 한다"며 "오래전 스님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모습에 반대 많이 하더니 지금은 신발이 되어버린 것이 자가용 문화다. 이미지는 곧 익숙해진다"고 말했다.

일간지에 실리는 종교편향적인 댓글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

B씨는 "조선일보 애독자들이 시각에 따라 댓글을 달 때 종교편향적 표현도 하고 있으니 너무 일회일비 하지 말라"며 "그런데 스님들이 인터넷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K씨는 "무의식중에 '스님들이 사회문제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낭비'로 바라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사는 기자

박구원 만평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활꼴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펜던트를 끼웁니다. 다시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에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활꼴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